<5·18문학상 신인상 동야분야 수상작>

한별이가 살던 집 (31.1)

조연희

밤바람이 휘 불어옵니다.

바람은 찔레꽃 가득 피어있는 빈터를 지나, 오래된 집에 다다릅니다. 외진 곳에 서 있는 기와집은 툭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바람이 대숲으로 쏴아아 소리를 내며 지나갑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립니다.

“내일이라고 했지? 우리가 사라지는 날.”

낡은 기와가 딸싹거리며 말합니다. 나뭇가지에서 잠을 자던 새가 놀라 푸드득 날아갑니다. 푸르스름하게 이끼가 낀 부엌 문짝이 대답합니다.

“그래 지난번에 몇 사람이 찾아와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지. 집을 허문다고. 아직도 이런 집이 남아 있냐고 놀라더군. 이제 이곳에는 골프장인지 뭔지가 생긴대. 흙벽아! 너는 이제 어디로 가고 싶어?”

흙벽이 먼지를 우수수 떨어뜨리며 대답합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 하긴, 우리가 이곳에서 꽤 오래 있었으니까. 나는 다시 부서져 흙이 되면 바람을 타고 세상을 구경 할 거야. 얼마나 변했는지, 지금 집들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어.”

동굴에서 들리는 깊은 울림처럼 방바닥 아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오랜 시간 불길들을 다 받아낸 새까만 구들[1]입니다.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겠지? 나는 평생 방을 덥히느라 해를 본 적이 없어. 누군가 나를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 던져 준다면, 밝은 햇살을 마음껏 쬐면서 살아 갈 거야.”

집은 내일을 생각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긴 시간을 살았으니 쌓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사라질 것을 알지만 마지막까지 서로를 꼭 붙들고 받쳐 줍니다. 마루가 삐꺽거리며 말을 겁니다.

“제일 아쉬운 건 뭐야?”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모두 한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한별이가 보고 싶어!”

동시에 말하는 목소리가 외침이 되어 대숲에 울려 퍼집니다. 이제껏 조용하던 대들보[2]가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굵고 낮은 음성입니다.

“한별이는 우리를 참 좋아했어.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사람이지. 한별이가 태어났을 때 생각나? 울음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던지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잖아.”

기와가 어린 한별이 모습이 눈에 선한 듯 말합니다.

“아장아장 걸으며 마당에서 숨바꼭질하곤 했어. 그렇게 조금씩 커가고 장난꾸러기 아이가 청년으로 변해갔지.”

문짝들이 덜컹거리며 호들갑을 떱니다.

---

1) 구들- 아궁이에 불길로 뜨겁게 데워져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덥히는 편편한 돌.
2) 대들보-집을 받치는 가장 큰 들보.

"생각나! 갸름한 얼굴에 동그란 눈. 웃으면 그 눈이 반달 모양으로 변했어. 가무잡잡한 피부에 큰 키. 그 봄만 아니었다면 오래도록 이곳에서 살았을지도 몰라."

문짝의 말에 모두가 한별이 얼굴을 떠올립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놀았던 한별이는 이 집의 마지막 주인입니다.

새벽 동이 트고 있습니다. 캄캄했던 어두움이 서서히 말간 푸른빛으로 변합니다. 대들보가 그때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별이 아빠가 초조한 얼굴로 마당을 나서며 말했어.

"여보, 아무래도 광주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어제까지 집에 오겠다던 한별이는 오지 않고 흉흉한 소문만 돌고 있어. 아무래도 내가 가서 한별이를 데려와야 할 것 같아."

한별이 아빠는 불안한 얼굴로 파란 트럭에 시동을 걸었어.

"조심하세요."

한별이 엄마가 멀어져가는 파란 트럭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어. 엄마는 종일 마당을 빙빙 돌며 남편과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어. 아주 깊은 밤이 되어도 소식이 없자 까무룩 잠이 들었지.

달조차 구름에 가려 캄캄한 날이었어. 대숲에 바람이 일고 개가 마당에서 컹컹 짖었어. 엄마가 부스스 눈을 떴을 때 방문 밖에서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어.

"엄마, 엄마!"

헛것을 들은 걸까? 엄마는 귀를 쫑긋 세우고 방문 앞으로 다가갔어. 분명 한별이 목소리 같았거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어. 엄마는 깜짝 놀랐어. 눈앞에 댓가지처럼 깡마른 한별이가 서 있었어. 너덜너덜 찢어진 옷에 다리엔 피가 엉겨 붙어 있었지.

"아이고, 내 새끼. 어떻게 온 거야?"

"도망쳤어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움직여서 집을 찾아왔어요."

"아빠는? 너를 데리러 간다고 아침에 나갔는데?"

"광주는 지금 전쟁터와 같아요. 군인들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고, 마구잡이로 끌어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겨우 도망쳐서 온 거예요."

한별이는 다친 한쪽 다리를 절룩였어. 엄마는 한별이 다리를 치료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 볼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며 엄마가 말했어.

"아빠가 무사히 돌아와야 할 텐데."

엄마는 한별이를 극진히 간호했어. 하지만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했지. 아빠는 소식이 없고 경찰들만 자꾸 찾아왔어. 엄마는 천장 구석을 조금 뚫고 그곳에 한별이를 밀어 넣었어. 그리고는 재빨리 뚫린 입구를 커다란 이불 보따리로 가렸지.

"엄마가 내려오라고 할 때만 내려와야 해. 알았지?"

엄마는 마당으로 나가 묶여있는 개 목줄을 풀어 주며 말했어.

"한별이를 꼭 지켜라!"

개가 말귀를 알아먹었는지 마당을 돌며 컹컹 짖었어.

어두컴컴한 천장에서 한별이는 손을 뻗어 보았어. 더듬거리는 손끝에 대들보가 만져졌어. 한별이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작은 칼이었지. 그 칼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대들보에 글씨를 새기었어.

'김한별, 이곳에 살다.'

한별이는 깊은 밤에만 천장에서 살금살금 내려갔어. 하지만 날이 밝으면 다시 천장으로 올라갔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경찰들 때문이었어. 우리는 알을 품듯 한별이를 품었어.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엄마를 따라서 누가 오든 시침을 뚝 땠어. 천연덕스럽게 처마 밑에 제비를 키우면서 말이야.

우리는 알고 있었어. 아무리 소문을 막으려 해도 바람이 들려주었고, 모든 일을 지켜보던 하늘이 들려주었지. 민들레 꽃씨까지 광주의 사연을 품고 날아다녔으니까.

며칠이 지나자 경찰들이 또 들이닥쳤어.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소? 간첩과 연관되어 있으니 숨기면 집안이 망할 거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말하시오."

"나는 모릅니다. 오겠다는 아들은 오지 않고, 아들을 찾아 나간 애 아빠도 소식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시원하게 말 좀 해주시요."

경찰이 엄마 말은 들은 척 만 척 주변을 둘러보았어. 개가 사납게 짖어대자 매섭게 쏘아보았어. 경찰은 마치 발길질이라도 할 것처럼 개에게 다가갔어. 험악한 표정을 보고 엄마가 개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

"개가 새끼를 가져서 그래요. 사람이 새끼 가진 짐승을 죽이면 죽어서도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한답디다."

보복이라는 말에 개를 발로 차려던 경찰이 움찔했어. 한별이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

'쿵! 쿵! 쿵!'

심장 울림이 천장에서 기둥으로, 기둥에서 벽으로, 가장 깊은 곳 구들까지 전달되었지. 한별이는 두려움에 몸을 웅크렸어. 침조차 삼키지 못하고 있을 때 한별이 몸 위로 무언가 슬금슬금 지나갔어.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뻗어 밀어냈어. 그건 바로 쥐였어. 쥐도 놀랐는지 천장 구석으로 내달렸어.

'우두두두.'

쥐가 달리는 소리가 천장을 울렸어. 경찰이 눈을 번뜩이며 방문을 쳐다보았어.

"아들이 혹시 집에 있는 거 아니야?"

경찰이 신발을 신은 채 마루 위에 올라섰어. 방문을 걷어 찾을 때였어. 개가 사납게 짖으며 마루 위로 뛰어오르더니 신발 뒤꿈치를 물고 늘어졌어. 화가 난 경찰이 개를 냅다 걷어차자 개는 마당에 널브러지고 말았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엄마가 소매를 걷어 올리고는 소리 질렀어.

"남편도, 자식도 다 행방불명인데 이제 새끼를 가진 개까지 죽일 거요?"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경찰에게 달려들었어. 그건 한별이를 지키려는 절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거야. 경찰들은 엄마가 달려들자 거칠게 밀어내고는 방안을 둘러보고 떠났지.

경찰들이 돌아가자 한별이는 천장에서 내려왔어. 엄마와 한별이는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어. 대숲도 울고. 땅도 하늘도 울었을 거야.

아빠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 한별이가 다니던 학교 앞에서 파란색 트럭만 발견 되었지. 아빠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엄마는 사방으로 아빠를 찾아 헤매다가, 입이 붙어버린 것처럼 밥을 목으로 넘기지 못했어.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지. 그 후 한별이도 아빠를 찾겠다고 집을 떠났어.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말이야. 그렇게 떠난 한별이를 다시는 보지 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아마 모를걸.

대들보 말을 듣고 있던 마루가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한별이는 어디로 갔을까? 살아있을까?"

"살아있어도 돌아오고 싶지 않을 거야. 이곳에서 엄마 아빠를 잃고, 아끼던 개까지 죽었으니까. 한별이

에겐 슬픔이 가득한 곳이지.”
대들보 대답에 모두 조용히 말이 없습니다.

새벽안개가 오래된 집을 쓸며 지나갑니다. 안개 때문인지 집은 눈물처럼 물기가 촉촉합니다. 어느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안개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내려옵니다. 새들이 사라질 집을 아쉬워하며 기왓장 위를 종종 걷습니다. 기왓장이 작은 새 발자국도 버거운 듯 후드득 떨어집니다.
‘드르릉.’
풀이 무성한 마당에 트럭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내려 집에 빙 둘러섭니다. 사람들은 오래된 집을 한 바퀴 돌더니 말합니다.
“한번 치면 쓰러지겠군.”
트럭에 싫고 온 커다란 기계가 벽을 내리칩니다. 한쪽 흙벽이 힘없이 우르르 무너집니다. 대숲으로 흙먼지가 날아갑니다. 그 순간, 뿌연 흙먼지 속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릅니다.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바스락, 바스락. 발자국 소리를 내며 한 노인이 대숲에서 나옵니다. 지팡이를 짚고 발을 절룩이는 노인을 누군가 부축합니다. 집은 마지막 힘을 내어 노인을 바라봅니다. 오래된 집은 노인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아! 동그랗고 서글서글한 눈매. 한별이야. 한별이가 왔어!”
집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며 외칩니다.
“거봐. 살아있을 줄 알았어. 언젠가 다시 찾아올 줄 알았다니까!”
노인이 아련한 눈빛으로 무너져가는 집을 바라봅니다. 두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집을 떠나던 날 그 눈빛입니다.
“너무 오고 싶었지만 죽어도 오기 싫은 집이었어. 집을 부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이곳에 오다니. 미안하다!”
노인이 한발 한발 집에게 다가서며 말을 건넵니다. 부축하던 사람이 말립니다.
“아버지, 위험해요.”
집이 무너져 내리며 말합니다.
“아들도 있어. 한별이와 꼭 닮았네.”
오랜 기다림이 이루어진 날. 그제야 집은 허물어집니다. 사람들이 멀찍이 물러서 말없이 바라봅니다. 노인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뿌연 흙먼지가 가라앉고 그제야 대들보는 햇빛을 봅니다.
노인이 대들보에 쌓인 흙을 손으로 밀어냅니다. 한별이가 칼로 새겼던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들이 소리 내어 읽습니다.
‘김한별, 이곳에 살다.’
노인은 엄마 아빠를 향한 그리움이 목까지 차올라 흐느낍니다. 아들이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집이 없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 대들보로 다시 새집을 지어요.”
아들의 말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트럭에 실려진 대들보는 허물어진 터를 벗어나 새로운 길로 떠나갑니다. 대숲이 햇살에 반짝이며 잎을 흔들어 줍니다. 트럭이 찔레꽃 길을 지나 눈부신 햇살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른 오월입니다.